

[P5 - 5]

노인성 질환자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

김진숙*, 이미영, 정선희, 이정희, 유혜은, 장경자.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

노인성 질환자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종합 병원에 내원한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 1702명(남자 731명, 여자 971명)을 대상으로 당뇨, 고혈압, 암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과 질환이 없는 대조군으로 나누어 환자-대조군 연구(case-control study)를 실시하였다. 2001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 면접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섭취한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종류와 섭취 이유, 효과의 인지유무, 구입경로, 정보의 급원 및 질병 등의 건강관련 인자들에 관해 조사하였고, SPS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.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율은 49.3%(남자 50.5%, 여자 49.5%) 이었고,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87.5%가 환자군이었으며 1인당 평균 섭취 종류는 1.31 종류로 나타났다. 섭취하는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종류는 남자환자군은 한약(18.5%), 개고기(16.9%), 종합비타민(16.2%) 등 순이었고, 여자환자군은 한약(18.4%), 종합비타민(18.1%), 비타민C(8.8%)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, 대조군은 남녀 모두 종합비타민(18.5%), 한약(16.7%), 비타민C(10.8%) 등 순으로 나타났다.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이유는 남자환자군이 주로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료인데 비해, 남자대조군은 영양보충과 건강증진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($p < 0.01$). 질환에 따른 섭취 종류는 당뇨병군은 종합비타민, 한약, 칼슘 등, 고혈압군은 종합비타민, 비타민 C, 칼슘 등, 암환자군은 한약, 인삼, 종합비타민 등, 관절염, 골다공증 등의 기타 노인성 환자군은 한약, 종합비타민, 인삼 등 순으로 섭취율이 높아서 질환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($p < 0.001$).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형태는 당뇨병군과 고혈압군은 정제 및 환제와 분말, 과립 형태의 섭취율이 높아 암환자군 및 기타 노인성 환자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($p < 0.001$). 질환에 따른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이유는 당뇨병군과 기타 노인성 환자군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섭취하였고, 고혈압군과 암환자군은 건강증진을 위해 섭취하였다.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보는 환자군 대부분이 가족, 친구나 친지로부터 알게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의사나 약사의 권유로 나타났으며, 대조군은 주로 TV나 라디오를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. 환자군 대부분이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대충 알고 복용하였으나, 당뇨병군은 모르고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($p < 0.01$). 섭취한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효과의 인지에 대해 당뇨병군과 고혈압군은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, 암환자군 및 기타 노인성 환자군은 효과를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($p < 0.001$). 이상의 결과로 볼 때, 노인성 질환자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율이 정상인에 비해 높고 질환의 종류에 따라 섭취실태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, 50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, 의료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 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위한 정보 제공과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

*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HMP-00-CH-17-0016에 의해 지원되었음.